

9·11 테러 《다빈치 코드》 영향으로 ‘뜬’ 종교서적



글 | 허선

현재 미국 출판시장은 종교서적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출판협회에 따르면 종교분야는 2003년 37퍼센트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9·11 테러 이후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증폭된 관심과 《다빈치 코드 The Da Vinci Code》의 성공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출판사들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종교’라는 소재를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꾸며 시장에 내놓았다. 성경, 코란과 같은 경전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변모하고 있어 미국 출판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종교서적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종교서적 시장의 9·11 테러 파급 효과

헤드라인 뉴스는 곧잘 책의 주제로 연결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서적의 저자, 독자, 출판사 그리고 서점 모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9·11 테러였다. 9·11 테러 이후 많은 독자들은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Clash of Civilizations》, 캐런 암스트롱의 《신의 역사, 신에 대한 투쟁 A History of God, The Battle for God, Islam: A short History》, 베나드 루이스의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슬람의 위기와 미래 What Went Wrong, Western Muslims and the Future of Islam》 등과 같이 이슬람을 다룬 책에 흥미를 보여 왔다. 여기서 나아가 독자들은 학자들이 9·11 테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죄지타운 대학 존 L. 에스포지토 교수의 《거룩하지 않은 전쟁: 이슬람 이름이라는 테러 Unholy War: Terror in the Name of Islam》 《이슬람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것들 What Every needs to Know About Islam》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종교서적의 대중화

미국 출판계를 흔들어 놓았던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 이후, 《다빈치 코드》 관련 의문을 파헤치는 종교서적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코드의 비

밀 Secrets of the Code》 《다빈치 코드 뒤에 숨겨진 진실 The Truth Behind the Da Vinci Code》 《다빈치 사기 The Da Vinci Hoax》 등이 현재 아마존 베스트셀러이고 최근에는 전문학자들이 쓴 책이 새롭게 베스트셀러에 진입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바트 D. 에르만 교수의 《다빈치 코드의 진실과 허구 Truth and fiction in The Da Vinci Code》, 애스버리신학교 벤 위더린튼 3세의 《가스펠 코드 The Gospel Code》 등이 그것이다. 또한 종교적 의문을 전문가의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써내려간 프린스턴 대학 엘레인 페이젤(종교학) 교수의 《믿음을 넘어서 Beyond Belief: The Secret Gospel of Thomas》와 하바드신학대학 캐런 킹 교수의 《막달라 마리아의 가스펠 The Gospel of Mary of Magdalene: Jesus and the First Woman Apostle》은 다빈치 코드의 인기에 힘입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이러한 《다빈치 코드》의 여파는 전통적 기독교 가르침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다빈치 코드》에도 언급된 인너 트래디션스 출판사의 《알라바스타 병을 들고 있는 여인 The Woman with the Alabaster Jar》과 《가스펠의 여신 The Goddess in Gospels》이라든지 《템플라 기사의 잃어버린 보물 The Lost Treasure of the Knights Templar》 등의 서적들은 그동안 틈새시장에 머물렀던 얼터너티브 기독교 대중화에 한몫 하였다. 이 출판사는 내년 초기 기독교에서 제임스의 역할을 파헤친 《예수의 형제 그리고 기독교의 잃어버린 가르침 The Brother of Jesus and the Lost Teachings of Christianity》과 《비밀 결사단 프리매손리 역사의 비밀 The Secret History of Freemasonry》을 출간할 예정으로 출판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멜깁슨의 논란 많은 영화 『그리스도의 열정 The Passion of the Christ』은 4종의 새로운 서적들의 출간을 불러왔다. 학자들과 신학자들의 글모음집인 『그리스도 열정의 관점들 Perspectives on The Passion of the Christ』, 위스콘신 오수코쉬 대학 캐더린 E. 콜리 교수의 『예수와 멜깁슨의 그리스도의 열정』, 독립학자 로버트 L. 웹의 『다시 보는 열정 Re-viewing the Passion: Mel Gibson's Film and Its Critics』 등이다. 또한 이 영화에 대한 영향으로 더블데이 출판사는 2005년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했는가 Why the Jews Rejected Jesus: The Turning Point in Western History』를 출간할 예정이다.

시대 흐름에 변화하는 종교서

내년 2월 역사상 가장 큰 성경의 출판이 예정되어 있다. 2002년 개정 이후, 존더반 출판사의 '새로운 국제 번역 *Today's -New International Version*'의 완성이었다. 제작에 10년의 기간이 걸린 이 책의 판매대상은 18세에서 34세다. 존더반 출판사의 부사장 볼 카미니티는 "정확성과 명확성을 중요시하고, 좀더 현대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젊은 세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는 새롭고 다양한 스타일, 색상, 구성의 성경이 포함되는데 트루 아이덴티티라는 여자용 성경, 스트라브라는 남자용 성경,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포켓용 성경 등이 있다.

또한 중세시대의 성경을 연상시키는 예술적인 성경들이 속속 발간되고 있다. 펠드하임 출판사는 시편의 글과 예루살렘 아티스트 모쉬 콤비 버거의 150개 석판화를 넣은 커피 테이블 북 『시편의 비전들 Visions of the Psalms: Through the Gates of Colors』을 출간했고, 브리티쉬 칼리그래퍼 도날드 잭슨의 『성요한의 성경 The Saint John's Bible』도 출간 예정이다.

종교인들이나 학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시장에서 벗어나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얻게 된 종교서적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며 미국 출판시장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 종교출판 시장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용이한 소재 개발로 독자 곁으로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을 해본다. ■■

9·11 테러의 충격과 《다빈치 코드》의 성공은 종교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Code Word: Breakout

이 글을 쓴 협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을 전공했고 2003년 미국에서 PMA Publishing university 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평화출판사와 진선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